

전주 탄소기술, 평창올림픽 데웠다

탄소융합기술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피치케이블, 의전석에 탄소발열시트 커버 설치

전주시가 미래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고 있는 탄소 기술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따뜻한 대회로 만들었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난 25일 폐막한 가운데 이번 올림픽의 개막식과 폐막식 등 주요 행사가 열린 평창 올림픽스타디움 VIP석(160석 규모)에는 전주지역 탄소 기업이 생산한 탄소발열시트 커버가 설치됐다.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인 (주)피치케이블이 개발·제작한 이 제품은 탄소발열체를 이용해 적정 온도로 발열시키는 실외 전용 발열시트 커버 제품으로 낮은

전력으로도 보온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 탄소발열시트 커버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식과 폐회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아베 일본 총리, 이방카 트럼프 미국 백악관 상임 고문,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 각국의 인사들이 모여 앉은 의전석에 설치돼 축제의 열기와 함께 국내·외 주요 내빈들이 평창의 축관을 물리치는데 도움을 줬다.

이 업체는 평창 동계올림픽 납품을 위해 자체 개발한 탄소발열체를 활용해 맞춤형 시트를 개발, 2달 간의 테스트

및 시연회를 거쳐 제품 성능을 인정받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로부터 최종 납품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9일부터 25일까지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탄소발열시트 커버 외에도 선수들이 사용한 각종 장비에도 강철보다 단단하지만 가벼운 첨단 탄소소재가 활용돼 눈길을 끌었다.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한 스키투혼과 봅슬레이 등 썰매 종목에서는 선수 몸무게와 썰매의 무게를 합한 총 중량에 제한이 있어 선수들은 기록 단축을 위해 탄소섬유가 사용된 썰매와 헬멧

등을 사용하고 있다. 또 설원 위의 마라톤으로 불리는 크로스컨트리 등 노르딕스키 종목에서는 장 시간 눈 위를 달리는 선수들의 체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탄소섬유를 활용한 가벼운 스키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수 시장은 "대한민국 탄소 산업 중심지인 전주는 탄소 산업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왔다"며 "탄소 산업이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하고 관련 기업들도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채규남 기자

도내 문화계도 미투 확산

연극배우 송원씨, '극단명태' 대표 최경성씨 폭로

도내에서 활동하는 한 극단의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배우가 나타나 '#미투(Me Too) 운동'이 도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연극배우 송원(31·여)씨는 26일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0년 1월 활동했던 '극단명태' 대표 최경성(50)씨에게 성추행과 상습적인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송씨는 "당시 최씨는 나를 도내 한 대학 뮤지컬 동아리 MT에 데려갔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손과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했다"며 "MT 장소에 도착한 뒤 따로 저녁을 먹으며 야한 농담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23살 어린 초보 연기자였기 때문에 대표에게 미움을 받게 될까 우려했다"면서 "최씨는 자리를 피하려는 나를 억박지르며 모델로 데려갔다. 모델 안에서도 옆자리에 눕게 하고 성희롱을 이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힘든 것은 그날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당시 상황을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극단 동료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이다"라며 "8년이 지나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상황에 최씨를 폭로하는 이유다"고 말했다.

또 "최씨는 내가 입단한 2006년부터 개인적인 일이나 극단 문제를 상의한다는 핑계로 불려 여자 이야기를 하고 밤 늦게 문자를 하며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피해자인 나는 이후 극단을 떠나 1년 넘게 연기를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아픈 기억에 힘들어 하는데, 피해자인 최씨는 성화 봉송 주자로까지 나서며 잘 사는 모습에 억울함과 무기력함을 느꼈다"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그는 "다른 피해자가 3명 더 있다"면서 "미투 운동에 동참하며 최씨의 처벌과 진정한 사과를 요구한다. 나 같은 피해자가 다시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최씨는 "나로 인해 상처받은 분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변명하지 않겠다"며 "그 일을 가볍게 생각했던 나의 무지를 후회하고 반성한다. 이번 미투 운동에 자유롭지 못한 나를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전했다. /뉴스

'완판본 맥(脈) 이야기' 전통 판각 강좌 수강생 모집

대장경문화학교가 운영하는 전주목판서화관에서는 '전통 판각 강좌' 8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전통 판각 강좌는 오는 3월 7일 개강을 시작으로 7월 18일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주목판서화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고 26일 밝혔다.

전주의 판각(板刻) 문화 전승을 위해 시작된 전통 판각 강좌는 이산 안준영 목판서화가와 함께하는 '전주 사립, 완판본 맥(脈) 이야기'라는 취지로 지난 2013년 처음 개설돼 그동안 20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수강생들은 지난해 완판본문화관에서 완판본 심청전 상·하권 목판 복각 출판기념식과 '100년만에 핀 꽃 완판본 심청전' 특별전시에서 복각한 완판본 심청전 목판을 공개하는 등 회원 전시회를 하기도 했다.

판각 강좌 초급반 수료생들 중 전문지도 과정을 마치면 대장경문화학교가 수행하는 목판 복원 사업의 보조각수(助手)로 참여가 가능하며 현재 20여 명의 보조 각수를 배출했다.

'전통 판각 강좌'는 책판에 글자를 새기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전승하고 이어가는 강좌이다. 초급반을 통해 전통 판각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지도해 목판서화(木板書寫) 작품을 새길 수 있도록 진행 예정이다.

전주목판서화관 관계자는 "이번 강좌를 통해 전주 시민들이 전주의 판각 문화, 목판 인쇄 문화에 친근하게 다가가고 완판본의 맥을 이어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전통 판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금 국민설명회

26일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기금 국민설명회에 출석한 도지사와 김광수 국회의원, 김성주 이사장 및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전주시, 식중독 예방·대응 관리 체계 구축

시·교육지원청, 12개 유관기관·부서와 상시 비상 연락 체계 가동하기로

전주시와 전주교육지원청, 외식업·영양사·조리사 협회가 식중독 사고 없는 안전한 전주를 만든다.

시는 26일 전주교육지원청과 외식업중앙회, 영양사·조리사협회 등 12개 유관기관·부서와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식중독 예방·대응 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참석 기관들은 식중독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 상시 비상 연락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각 유관기관 및 부서별 식중독 예방·대응 매뉴얼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식중독 예방·대응 협의회는 올해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보장을 목표로 식중독 예방수칙 맞춤 홍보에 힘쓰고 음식점 종사자와 영양사, 조리사에 대한 위생교육을 하기로 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 위생업소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 식중독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과 전파

로 식중독균과 바이러스 등의 감염 경로를 차단해 추가 환자 발생을 막는데 힘을 기울인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와 끓여먹기, 익혀먹기 등 식중독 예방 기본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식중독 예방과 위생 안전으로 맛의 고장 전주의 명예를 견고하게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호텔서 마약 투약한 60대 현행범 구속

경찰이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하던 60대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4시30분경 전주시에 한 호텔 객실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고 객실 내 냉장고, 집기 등을 부수고 고함을 지르는 등 난

직장 동료 현금카드 훔친 20대 달미

직장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의 현금카드를 훔친 20대가 경찰에 달미를 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6일 절도 혐의로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부터 11월21일까지 직장 동료 B(32)씨의 체크카드를 훔쳐 모두 34차례에 걸쳐 1440만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다. /이상민 기자

경찰은 A씨가 훔친 금액이 많지만 훔친 금액을 변제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